

# SKC, 6월 바이오산업 진출 선언!

11%의 지분투자, DBT는 연구개발 전담 ... 생산·마케팅은 공동추진

2003년 4월29일 SKC(대표 최동일)가 벤처기업인 디지털바이오테크놀로지(DBT)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6월부터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.

SKC는 DBT에 지분을 11% 투자하고 DBT는 연구개발(R&D)을 전담하며, 생산과 마케팅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. 국내 디지털 바이오 산업은 초기단계이지만 각종 Utility를 보유한 대기업과 전문벤처기업의 만남으로 주목된다.

DBT는 이미 SKC 수원공장 내 중앙연구소에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DBT의 기술력과 SKC의 생산 및 마케팅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제휴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.

SKC는 그동안 축적한 광미디어 생산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DBT가 개발한 LOC 제품의 일종인 C-Film(세포계수기)을 성공리에 생산했고 2005년까지 800억원대의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SKC는 6월부터 칩안에 연구 프로세스를 축소시켜 놓은 연구 및 의료진단용 LOC(Lab-On-a-Chip)를 비롯해 휴대형 혈액분석기와 현장진료기기(POC), DNA 칩 스캐너 및 마이크로-CE 등 분석기기를 생산 국내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. POC는 Point Of Care의 약자이다. <김선환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5/13>